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제안자 韓成敏

이번 ‘국사들의 대화’에서 필자가 제기하는 주제는 지금의 ‘역사학, 역사학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위기감 또는 문제의식의 표출이다. 기존의 역사학, 역사학자의 존재양상에 대한 위기감이 필자 혼자만의 생각인지, 다른 분들도 공감하는 것인지, 공감한다면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싶다.

1) 역사학의 위기

- 시대의 변화

냉전 해체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그동안 새로운 사회의 방향성을 선도하던 역사학의 사회적 역할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은 스스로의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사회적 주목도도 떨어지고 있다.

- 뉴미디어의 등장과 유사역사학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유사역사학은 과도한 민족감정의 자극과 대립,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선정적인 역사해석을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YouTube) 등의 뉴미디어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대중적 관심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특정한 역사해석에 대해 확증편향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한 역사학계의 대응은 매우 늦고, 미약하다.

- 대중 영역에서의 ‘역사 소비’ 활발

대학에서 학생들의 역사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역사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력의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 정년 이후 삶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증대되면서 인문학, 역사학 등에 대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사학은 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다양한 박물관, 기념관 및 역사기행 등의 프로그램들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많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대중적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단기간에 속성으로 양성된 도슨트(docent), 해설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다수는 부족한 내용성을 청중에게 선정적이고 과도한 민족감정, 애국심을 자극함으로써 대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내용성 자체가 유사역사학의 역사해석을 기반으로 구성된 케이스도 많다.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콘텐츠에 대해 자본과 미디어 기술이 결합하여 역사콘텐츠를 오락과 돈벌이로 삼는 상업화도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 역사적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대중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의 역사콘텐츠(설사 그것이 실제 사실이 아닐지라도)에만 관심을 두는, 즉 상업적 관점에서만 역사콘텐츠에 주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학원강사 출신의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역사 전문가를 자처하며 역사 콘텐츠 관련 예능프로그램 주도하면서 심각한 역사 왜곡의 문제, 잘못된 사실의 전달, 대중에 대한 과도한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 정서 자극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역사학자의 위기

- 역사에 대한 역사학자의 독점시대 종말

그동안 역사학자들은 전문성을 무기로 역사지식의 독점, 역사해석의 독점, 사료 접근에 대한 기회의 독점을 누려왔다. 그러나 역사학의 전문성은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사료들이 누구나 읽기 쉽도록 번역되고 있고, 그것은 다시 디지털화되어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중에게 전달됨으로써 대중의 사료에 대한 접근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굳이 역사학자의 해석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사료에 접근하여 역사해석이 가능해 졌다. 역사학, 역사학자의 학문적인 독점이 점차적으로 소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변하지 않는 역사학, 역사학자

하지만, 지금의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은 근대 역사학이 시작된 100여 전과 그다지 변화 없는 연구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료 분석, 논문과 저서 집필, 강의 외에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3) 현실적 문제

- 사학과와 존속,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

역사학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사학과를 졸업한 학부, 대학원생의 취업에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학 안에서도 역사관련 과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인구 감소 과정에서 현재 한국의 각 대학 사학과들은 늦고 빠른 시기의 문제가 있으나, 학과의 정원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년 정원 미달의 문제가 이미 일부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고, 학과 통폐합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역사학의 학문 후속세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명을 전통적인 사학과에서 ‘역사문화학과’ 또는 ‘역사콘텐츠학과’ 등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은 아니었다. 대대적인 커리큘럼의 변경없이 일부 새로운 과목의 도입과 함께 학과명을 변경한 결과는 위기의 가속화를 잠시 지연시켰을 뿐이다.

4) 대안은

- 하나의 대안으로서 'Public History'

필자는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학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해 왔던 '역사대중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는 한국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은 용어이다. 왜냐하면 역사대중화는 "딱딱하고 어려운 학술연구를 대중이 읽기 쉽게 쓴 역사, 대중의 흥미를 자아내는 재미있는 역사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이는 '대중의 무지',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에 대한 역사학자의 독점적 권위를 전제로 한 일종의 대중계몽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기한 '역사 대중화'는 실제로는 'Public History'에 가깝다. 이를 한국에서는 '공공역사', 일본에서는 'パブリック ヒストリー', 중국에서는 '公衆史學'으로 표기, 번역한다.

- 'Public History'의 개념 및 주요 내용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고,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안문에서는 생략한다.

- 역사학은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증명해야 할 시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성민/HAN Sungmin/韓成敏

1991년 東國大學校 史學科 입학. 1998년 東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입학. 2016년 東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博士課程 졸업, 文學博士 학위 취득. 現在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院 研究教授. 專門分野는 韓國近代史. 近代韓日關係史. 韓國近代外交史. 근대 이후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한일 간 역사문제의 기원으로서 근대 한일관계사에 천착하여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작 : 『日本の '韓國併合' 過程 研究』(京仁文化社, 2021), 「제2회 헤이그 萬國平和會議 特使에 대한 日本의 對應」(『韓日關係史研究』 51, 2015), 「亡命者 金玉均에 대한 日本政府의 處遇와 朝鮮政策(1884-1890)」(『歷史와現實』 109, 2018), 「1907년 體制 成立過程에서 日本의 韓國政策과 韓國社會의 對應」(『日本歷史研究』 49, 2019) 등.